

수원시 올해 2차 추경안 4조1677억 수정가결

시의회, 임시회 마무리
총 28건 안건도 처리

경기 수원시의회가 최근 제 4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주요 안건을 처리하며 11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제404회 임시회는 지난 1일부터

11일까지 진행했으며, 총 28건의 안건이 부의됐다. 세부적으로는 예산안 1건, 조례안 9건, 동의안 11건, 계획안 1건, 변경안 1건, 보고 1건, 의견청취 4건으로, 의결발의 안건 4건과 시장 제출 안건 24건이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수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민간위탁 동의안 등을 처리했다.

'수원시 10.29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안'은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로 수정가결됐으며, '수원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수정가결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친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은 총 4조1677억원 규모로 수정가결됐으며, '2026년도 옥외광고발행허가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됐다.

이와 함께 2030년 수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매탄1구역(금성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안, 2036 수원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안, 연화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등에 대한 의견제시를 비롯해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

영 및 조속 추진을 촉구하는 결의안 등 주요 안건도 처리했다.

한편 이날 5분 자유발언에는 윤일영 의원, 서지연 의원, 최성호 의원, 박해연 의원, 배준서 의원이 나서 ▲수원형 교육협력 모델 구축 ▲영동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민관협력 DMO 구축 ▲축재와 지역상권 연계 ▲사회적 참사를 아우르는 통합 조례 제정 등을 제안했다.

수한·임종인 기자 lim@siminilbo.co.kr

“영종진 해안 보행로 파손·보강 반복
예산 낭비·주민 불편 되풀이 불가피”

김광훈 시의원, 사설 관리 당부

김광훈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민·영종구2)이 최근 천정재자유구역청 관계자, 지역 어촌계 관계자 등과 함께 영종진 해안 보행로와 씨사이드파크 일대를 찾아 해안 친수시설의 파손·부식 실태와 보수 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영종진 해안 보행로 돌레길”은 구름벚터와 씨사이드파크 사이 단절된 해안 산책로를 연결하기 위해 50여9000만원을 투입해 2023년 6월 조성됐다.

그러나, 준공 두 달 뒤 대조기부터 해수 침수가 발생한 데 이어 목재 데크와 철제 구조물의 파손·부식이 이어졌으며, 현재 전체 230m 가운데 약 100m는 철거하고 나머지 130m는 보강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김 의원은 “여객이 가까이 들어 만든 시설이 3년여 만에 상당 구간을 철거하고, 다시 보강해야 한다면 단순한 보수로 끝날 사업은 아니다”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철거하고 덧대는 방식이 반복되면

예산 낭비와 주민 불편도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안시설은 열풍과 침수, 바람 등 일반 공인시설보다 훨씬 까다로운 환경에 놓여 있는 만큼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설계부터 시공·유지관리까지 전반적인 기준을 다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씨사이드파크 옆전 공원 등 해안과 맞닿는 다른 시설에서도 철제 구조물 부식과 데크 파손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개별 시설의 사후 보수를 넘어 영종지역 친수·공인시설 전반의 관리 기준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현장점검을 토대로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영종진 보행로 파손 원인 분석 ▲설계·시공 및 하자보수 책임관계 확인 ▲보강공사 자체·공법의 적정성 검증 ▲대조기 열풍 등 해안환경을 반영한 시설관리 기준 마련 ▲영종지역 유사 친수시설 안전점검 등을 향후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점검할 계획이다.

인천·문진식 기자 mcs@siminilbo.co.kr

면목중과 모의 본회의 개최

중랑구의회, 의회교실 운영

서울 중랑구의회(의장 박영환)가 최근 의회 본회의장에서 면목중학교 학생 12명과 지도교사가 참여한 가운데 의회교실을 열었다.

지난 18일 열린 의회교실은 학생들이 일상에서 접하는 문제를 의회의 회의 절차에 따라 다루어보고, 공동체의 의사가 결정되는 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마련됐다.

구의회에 따르면 이날 회의 주제는 ‘교내 스마트폰 일괄 수거’였다.

학생들에게 익숙한 학교생활 속 사안을 모의 본회의의 안건으로 다루어 의결활동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자 했다.

학생들은 본회의장 견학을 시작으로 의결서류를 낭독하고, 의장과 의원 등의 역할을 맡아 모의 본회의를 진행했다는 게 구의회의 설명이다.

안건을 상징하고 표결을 거쳐 의의를 마무리하는 일련의 절차에 참여했다.

또한 의회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을 직접 경험했다.

교실을 벗어나 본회의장에 자리한 학생들에게 이번 활동은 지방의회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기회가 됐다.

특히 자신들의 생활과 맞닿은 주제를 통해 공동체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의 의미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보냈다.

구의회는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생활 속에서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의회 체험의 기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의회교실 참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구의회 의사팀(02-0094-2075)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여경준 기자 yyj@siminilbo.co.kr



강남구 자율방재단 18주년 기념행사 및 소양교육

일시 : 2026. 9. 16. (수) 14:00~16:20

장소 : 청담평생학습관 대강당

강남구 자율방재단 기념 행사

참석했다. 사진은 행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김현기 강남구청장, 강남구 의원, 자율방재단원들의 모습.

서울 강남구의회가 최근 청담평생학습관 대강당에서 열린 강남구 자율방재단 18주년 기념행사에

“서대문구 재난안전과·소통담당관 협업 재난·통제 정보 SNS 실시간 제공을”

김선우 구의원, 행감서 지적

김선우 서울 서대문구의회 의원은 최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난안전과와 소통담당관의 협업체제를 구축하고 공식 SNS를 통해 재난·통제 정보를 실시간 제

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소통담당관 감사에서 많은 비가 예상해 재난문자가 발송된 지난 7월17일 상황을 사례로 들며, 당시 구청 공식 SNS에는 기본적인 재난 행동요령만 게시됐을 뿐, 주민이 확인할 수 있는 현

정보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난문자 수신을 가능케 하는 구민도 상당수 존재한다며 문자에 내 의존하지 말고 ‘담근마켓’과 ‘인스타그램’ 등 접근성이 높은 플랫폼을 활용을 도로 통폐구건과 위험지역 정보를 신속히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재난안전과와 소통담당관이 재난 상황의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며 정보 전달체계 개선을 요구했다.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서울시의회 “쾌적한 환경 유지해야”... 속초수련원 노후 시설 개선 촉구

현장 점검 후 직원 의견 청취

행감·예산안 심사에 반영키로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서울시 속초수련원의 노후시설을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청소 대체인력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15~16일 강원도 속초시에 있는 수련원을 찾아 객실과 식당, 부대 편의시설의 관리 상태와 이용자 편의성을 점검했다.

최유희 의원은 낙후된 속초수련원이 이용 수요와 시설별 노후도를 고려한 단계적 개선계획을 세

우고 관련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한상 의원은 청소인력 부족 여부와 휴가·병가 발생 시 투입할 대체인력 확보 상황을 살피고 안정적인 시설 관리를 위한 중원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위원들은 수련원장에게 운영 현황을 보고받은 뒤, 환경 개선 추

진 상황을 확인하고 현장 직원들의 애로사항도 들었다.

이민욱 행정자치위원장은 “이용객들이 안락하고 편안한 휴식을 누릴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 유지와 이용 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서울 중구의회, 신당8구역 갈등 해소 머리맞대

노노·노사·민관경 건담회 참석

서울 중구의회(의장 윤관오)가 최근 청구동 주민센터에서 신당8구역 재개발 공사현장과 관련한 주민 피해 및 노조 간 갈등 해소 위한 ‘노노·노사·민관경 건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건담회는 중구의회와 중구청, 중부경찰서가 중심이 돼 관계기관과 주민들을 한자리에 모으며 성사됐다.

현장에는 중구의회 의원 6명을 비롯해 중부경찰서, 중구청, 서울시장의, 시공사인 포스코에너지, 양회 건설기계 노조 관계자, 신당8구역 재개발 조합, 인근 초등학교 학부모 및 주민대표 등 약 30여명이 참석해 그동안의 갈등 상황을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논의했다.

그간 신당8구역 재개발 현장은 지난 6월부터 지게차 사용계약에 이르기까지, 인근 청구초등학교와 홍익초등학교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는 물론 주거 밀집 지역 주민들의 일상과 안전, 학습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이슈로 이 문제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계기관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의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태 해결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였다. 앞서 지난 8월1일 윤관오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직접 현장을 찾아 주민과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청취한 데 이어, 의회와 중구청, 경찰을 비롯한 관계기관이 건립한 공조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중재에 나섰다. 그 결과, 지난 4일 양측 노조가 지게차 사용계약에 적극적으로 합의하고 신당8구역 및 포스코 본사 앞 집회를 철회하기로 결정하면서 평화적 해결의 물꼬를 텄다.

이날 건담회에서는 그동안 고삐를 늦춘 주민들에 대한 노조 측의 사과와 함께 향후 공사 기간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상생 방안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윤관오 의장은 건담회 자리에서 “신당8구역 문제는 단순한 노사 간 갈등을 넘어 인근 주민과 학생들의 일상과 안전, 학습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지역 현안”이라며 “중구의회 의장으로서는 이 문제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여경준 기자 yyj@siminilbo.co.kr



중심을 잡습니다 핵심을 전합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는
국내외 최대 취재망을 통해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다양한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균형잡힌 언론의 시작은
언제나 연합뉴스입니다.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